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 (KFSS-II)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유 영 주

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조 교 수 이 인 수*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순 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최 희 진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Emeritus Professor : Yoo, Youngju

Graduate School of Welfare Counseling, Dept. of Family Counseling & Therapy, Sang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Insoo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Senior fellow Researcher : Kim, Sunki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Researcher : Choi, Hee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II (KFSS-II) which was modified and developed by Yoo(2004). For this purpose, the preliminary scale of family strengths which was based on Yoo(2004)'s sample survey that targeted 494 adults who live in Korea consisted of 30 item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29 items extracted 5 factors. It included the 5 dimensional constructs of family resilience,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qualitative bonding, economic stability and cooperation and caring about commun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stepwise 5-factor model of 22 items considering family strength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mple template of Family Strengths Scale would be a concise and reliable tool for assessing and evaluating a family's strengths.

▲주제어(Key Words) : 가족건강성척도(family strengths scale), 건강가족(strong family),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 Corresponding Author: Lee, Insoo, Graduate School of Welfare Counseling,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 Therapy, Sangmyung University,
Tel: +82-2-2287-5048, E-mail: linsoo@smu.ac.kr

I. 서론

가족에 대한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가족이 왜 실패했는가?” 라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가족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Otto, 1962; Stinnett & Saur, 1977; Barnhill, 1979; Olson, Russell & Sprenkle, 1979; Sanders & DeFrain, 1981; Curran, 1983; Stinnett, Stinnett & DeFrain, 1985; Olson, Russell & Sprenkle, 1989; Olson, 1993; Olson & DeFrain, 1994; Walsh, 1998; Olson & DeFrain, 1999; DeFrain, 2002; Yoo, 2004).

건강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s)은 삶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관점으로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강점을 찾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 즉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o & Yoo, 2001).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작되어 건강한 가족에 대한 모델 및 이론들이 제시되고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건강가족 연구가 시작되어,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가족, 맞벌이부부, 농촌부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주부, 청소년, 대학생, 노인 등 다양한 가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주제는 건강가족의 요소를 파악하거나 결혼안정성, 부부 상호작용, 행복, 자아존중감 등의 다른 변인과 가족건강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그 외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Eo & Yoo, 1995; Choi, 2006) 등이 진행되었으나 척도개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나 표준화를 위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Kim & Kim, 2011; 재인용).

우리나라 건강가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대개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외국의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척도들은 서구적인 문화와 가족생활을 반영한 것이어서 한국문화 및 가족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Eo and Yoo(1995)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한국가족의 건강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Stinnett et al.(1982)의 미국 가족 연구에서는 ‘사랑, 종교, 존경, 의사소통, 개인성 존중’ 등의 가족의 장점(family strength)과 ‘함께 외출이나 외식하기, 휴가, 교회가기, 운동하기’ 등 가족을 강하게 하는 활동이 건강가족의 요소로 밝혀져 애정 및 소속감과 독립성 존중의 요소가 건강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소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o and Yoo(199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 건강성 하위영역을 ‘가족간의 유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 공유’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가족 간의 유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유대 영역에서도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가족 공동 활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대의 정서적 측면과 실제 행동적 측면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으며, 가치체계 공유 영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 합의를 가족가치관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족의 정서를 반영하여 가정의 화목, 가정에 충실함, 연장자에 대한 존경, 가족원으로서의 역할 등이 가족건강성 측정 문항에 포함되었으며, 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주의적 의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이 함축되어 있는 집단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가족의 개념 및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Eo & Yoo, 2001). 특히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고, 2013년 현재 전국에 151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건강가족 서비스 실천 현장이나 일반 가족들이 가족의 건강성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족건강성 척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1995년에 제작된 Eo and Yoo의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거나 2004년에 개발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Yoo, 2004)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o and Yoo(1995)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제작된 지 오래되어 재검증과 일부 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도 문항의 수가 68문항으로 다소 많아 가족의 건강성을 진단,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일부 문항만 사용되며(Park, 2012), 성인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이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문항을 수정하거나 일부 발췌하여(Jeong, 2007; Kim, 2008)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가족건강성 연구와 건강가족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II (Family Strengths Scale: KFSS - II) 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와 가족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을 진단, 평가하고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건강성

가족은 인간이 가진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체제로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어떤 시각에서 가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원의 구성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가족의 의미와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Olson and DeFrain(2004)은 ‘가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들이 서로 돕고 몰입되어 있으며,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을 서로 나누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Bureau of the Census(1992)에서는 ‘한 집에 거주하는 서로 관련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하는 등 혈연관계보다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중시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또한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가족행동의 내적 작용에 관심을 두고, 가족 내에서의 감정, 사랑, 경계, 의식, 패러다임, 규칙, 일상생활, 의사결정, 자원관리 같은 가족과정, 가족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Yoo et al., 2009).

건강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건강에 더 적합하고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다. 건강이란 ‘몸에 병 없음’, ‘튼튼함’ 인데 WHO (The World Healthy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행복(well being)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건강’이란 불편함이나 무력감 없이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정신적 건강’이란 생활에 대해 행복하고 희망적이며 정력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Yoo et al., 2009). 즉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나 불안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각 연령에 맞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의 개념에 영적(spiritual) 안녕을 포함하여 정신적으로도 양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 되고 있다 (Fliopoulos, 1990; Lee, 2000).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준거가 되는 ‘건강한 가족(strong

family)’의 개념은 최근 가족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가족의 중요성, 특히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인 건강성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발전하였다. 건강한 가족에 대한 선구적 연구를 행한 Otto(1962)는 건강한 가족의 강점(strengths)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며, 가족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여 모든 가족이 잠재된 강점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Stinnett and Saur(1977)은 자아성취 또는 자아실현은 일생에 걸쳐 건강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모두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건강가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Yoo (1994)는 건강가족을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적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Eo and Yoo(1995)는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이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고, Yoo(1999)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Kim & Kim(2011)도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족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가족을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의 가족은 구조나 형태가 확실적인 기준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고 가족과정과 가족관계가 잘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며, 건강은 신체적·정신적 행복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을 개인의 발달과 자율성을 도모하면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이룸으로써 가족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가족의 건강성’은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가족이 가족과정과 관계를 기능적으로 실행하여 가족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이라는 체계로서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 등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 건강성 척도

건강한 가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은 <Table 1>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 척도들은 대부분 자기보고식이며,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에는 갈등해결,

Table 1. Family Strength Scales

Scale	Author & Producers(year)
Family Functioning Index	Pless & Satterwhite (1973)
Family Evaluation Scale	Lewie, Beavers, Gosset & Phillips(1976)
Family Strength Inventory	Stinnett & Sauer(1977)
Family Life Questionnaire	Guernsey(1977)
Family APGAR Index	Smilkstein(1978)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II (FACESIII)	Olson, Porter & Lavee(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 (FACES 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V (FACES IV)	Olson, Gorall, & Tiesel(2007)
Family Environment Scale	Moos & Moos(1981)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	Feethman(1982)
Family Assessment Measure	Skinner et al(1983)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win & Bishop(1983)
Family Concept Test	Van Der Veen(1984)
Family-of-Origin	Hovestdt et al.(1985)
Family Strength Scale	Olson, Larson & McCubbin(1985)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ce Questionnaire	Roelofse & Middleton(1985)
Self Report Family Inventory	Beavers, Hompson & Hulgus(1985)
Family Functioning Scale	Bloom(1985)
Family Heath Scale	Kinston, Loader & Miller(1987)
Family Functioning Scale	Tavitan, Green, Lubiner & Grebstgein(1987)
Family Awareness Scale	Kolevzon & Green(1987)
Family Inventory of Resource for management	McCubbin & Comeau(1987)
Family Hardiness Scale	McCubbin, McCubbin & Thomson(1987)
Family Assessment Scale	Fristad(1988)
Family Adaptation Scale	Sourani & Antonovsky(1988)
Family Well-bing Scale	Caldwell(1988)
Family System Functioning	Doane, Hill, Kaslow & Quilan(1988)
Georgia Family Q-sort	Wampler & Halverson(1989)
Family Strength Scale	Eo & Yoo (1995)
American Family Strengths Inventory	DeFrain & Stinnett(2000)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KFSS)	Yoo (2004)
Family Strengths Inventory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2010)

Source: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Yoo(2001), p.155

가족 내 애정, 의사소통 패턴, 지배성 혹은 권력구조 등의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원간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권위의 개념이 강조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족원이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특성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정도구들은 복잡한 가족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각 학자들이 제시한 많은 개념들이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의 개념들이며 연구자의 이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각 학문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측정도구들이 제한적이

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척도 중에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측정보다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가족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Olson, 1979; Kantor & Lehr, 1975; Reiss, 1981; McCubbin & McCubbin, 1988). Olson(1979)의 연구와 McCubbin and McCubbin(1988)의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Kantor and Lehr(1975)와 Reiss (1981)의 연구에서는 관찰 자료를 통하여 가족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유형을 규명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가족이나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과 임상분야에서 역기능적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여 치료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족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극단에 위치한 자료를 배제하거나 문제가족으로 규명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고 통계처리 시 비율척도를 명명척도로 전환함에 따른 불편함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정도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 대상과 목적에 맞는 척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족 연구는 1990년대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후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건강가족의 하위영역이나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Choi, 1999; Eo & Yoo, 2001; Yang, 2004)와 가족건강성과 결혼안정성의 관계(Lee, 2008), 부부 상호작용 요인과 가족건강성을 탐색한 연구(Yang, 2004), 가족건강성과 행복(Kim, 2012)과의 관계 또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Lim & Kang, 2012)과의 관계 등 가족건강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와 가족건강성의 요인 확인 및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Eo & Yoo, 1995; Choi, 2006)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Kim & Kim, 2011). 연구도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다양한 연구 대상으로 폭넓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우리나라 가족의 건강성을 규명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족 연구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가족건강성 측정 도구를 위한 연구는 아직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 초기 연구에서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족을 평가하다보니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o and Yoo(1995)는 기존 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측정도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국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가족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가족원의 가치체계공유(9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Eo, 1996) 이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건강가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자료의 요구가 높아져 Yoo(2004)는 DeFrain and Stinnett(2000)이 개발한 American Family Strengths Inventory(86문항)의 삶을 공유(sharing life together), 상호 돌봄(caring for each other), 효율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 effectively with each other), 상호 존중(valuing for each other), 안녕감을 위한 영적 연대(connecting spiritually for sense of well-being), 도전을 통한 성장(growing together through challenges)의 6개 하위영역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에 관계된 4문항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준거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하는 건강가족의 개념과 요소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을 제작한 뒤,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60세 남녀 1675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총 68문항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개발하였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0)에서는 센터 이용자들에게 바로 적용하여 이들의 건강성 정도와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가족관계지표(소통과 친밀감) 10문항, 자원관리지표(가치와 가족자원관리) 10문항, 외부관계지표(일-가정 균형과 지역사회관계) 10문항, 3개 지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가족건강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관계지표(R), 가정관리(자원관리)지표(M), 외부관계지표(E) 3지표와 가정의 기초생활 등 4개 영역에 대한 총점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며, R, M, E세 지표의 높고 낮음에 따라 8개의 가정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정을 유형화하여 건강과 비건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모든 부분의 건강성이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유형화를 통해 가족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부분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강점과 보완할 점, 실천전략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유형화를 통한 평가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족에 맞는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외국 척도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 가족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척도개발 연구 및 한국형 척도가 많이 부족하여, 건강가족 연구와 진단의 기초가 되는 측정도구 개발 및 개선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라 하겠다.

현재 건강가족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국형 척도는 Eo and Yoo(1995)의 '가족건강성' 척도이며,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도 한국형 척도로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Eo and Yoo(1995)의 척도는 제작된 지 오래되어 현대 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Yoo(2004)의 'KFSS'는 문항의 수가 많아(68문항) 사용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워 일부 발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경우 발췌된 문항에 대한 정확한 재검증 과정 없이 신뢰도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좀 더 간편하게 축소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건강성척도 사용 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의 문항수를 줄이고, 문장을 좀 더 평이하게 수정, 구성하여 여러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건강성' 측정 및 관련 연구에 사정 및 평가의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 (KFSS-II)'를 개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척도 문항 구성

1)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

본 연구를 통하여 간편형 척도로 재구성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II)'의 원 척도는 Yoo(2004)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Yoo(2004)는 DeFrain and Stinnett(2000)이 개발한 American Family Strengths Inventory를 사용하여 한국가족의 가족건강성 측정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준거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적 신뢰할 만한(Cronbach's $\alpha = .92$) 척도임을 밝혔으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가족의 개념과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286명을 대상으로 한국가족의 건강성 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이론적 근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의 문항을 제작한 뒤,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60세 남녀 2000명(다단계 층화 무작위 표집)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집한 결과를 분석하여 총 68

문항, 6요인(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으로 구성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5~.89로 높게 나타났다.

2)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II(KFSS-II)의 문항 검토 및 선정

KFSS를 간편형 척도로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원척도 68문항에서 전체 총점과의 상관이 4 이하인 문항을 삭제하고, 가족학 전공 박사 5인이 내용상 문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이나 하위요인의 특성을 뚜렷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타당도를 수행하였다. 이 작업으로 30개 문항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다시 여러 차례의 문항 내용 검토를 통하여 애매한 용어나 문장을 수정하고, 모든 문항이 긍정적인 문장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문항의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 일상생활의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학 전공 전문가 10인의 논의를 통하여 문항의 이론적 적절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30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한 후, 예비조사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남녀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Table 2. Satisfactory analysis of items

(N=135)

item	Mean	SD	χ^2	Cramer's V	item	Mean	SD	χ^2	Cramer's V
1	4.02	.79	47.62***	.84***	16	3.73	.82	54.90***	.90***
2	4.08	.73	48.18***	.84***	17	3.48	.90	53.78***	.89***
3	3.68	.88	42.68***	.79***	18	3.58	.85	46.98***	.83***
4	3.83	.77	42.05***	.79***	19	3.56	.92	42.98***	.80***
5	3.63	.82	45.61***	.82***	20	2.67	.96	28.61***	.65***
6	3.63	.80	45.09***	.81***	21	3.07	.91	41.26***	.78***
7	3.21	1.04	39.53***	.76***	22	3.12	1.11	39.22***	.76***
8	3.18	.97	44.29***	.81***	23	3.47	.93	47.67***	.84***
9	3.75	.69	30.53***	.67***	24	3.51	.80	43.46***	.80***
10	3.39	.93	15.84***	.48***	25	3.36	.90	28.51***	.65***
11	3.54	.84	47.33***	.83***	26	3.83	.81	44.01***	.80***
12	3.14	.91	32.58***	.69***	27	3.12	.91	40.83***	.78***
13	3.50	.87	50.67***	.86***	28	3.35	.83	41.98***	.79***
14	3.59	.84	40.52***	.77***	29	3.67	.80	45.44***	.82***
15	3.73	.85	28.67***	.65***	30	3.29	.88	39.86***	.77***

*** $p < .001$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Sex	male	166(33.7)	Marriage	Unmarried	180(37.5)
	female	326(66.3)		Married	267(55.6)
	Total	494(100)		others	33(6.9)
Age	below the 20s	123(26.6)	Education	Total	480(100)
	the 30s	78(16.8)		~Junior high school	27(5.5)
	the 40s	118(25.5)		Senior high school	227(46.3)
	the 50s	74(16.0)		College & University	209(42.7)
	more than 60s	70(15.1)		Graduated School	27(5.5)
	Total	463(100)		Total	490(100)

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거나 애매한 문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수집된 응답에 대하여 문항양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 총점 상·하위 25% 집단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가족건강성 측정 문항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척도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3월~5월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제를 제외하고 4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33.7%)보다 여성(66.3)이 많았고, 20대(26.6%)와 40대(25.5%)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고졸(46.3%) 및 대졸(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척도 문항의 특성과 변별성,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요인 구조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하위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er. 20.0 프로그램과 AMOS Ver. 20.0 프로그

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분석

분석 자료의 기초적 특성을 알아보고, 가족건강성에 대한 각 문항의 관련성과 변별력을 살펴보고자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 분석과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가족건강성 문항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3.04~4.17, 표준편차는 .78~1.14의 범위에 나타났는데, 위의 기준에 벗어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점의 왜도와 첨도 값 분석 결과, 각각-.33과 .25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분포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Curran, West and Finch(1996)에 의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왜도 2 이하, 첨도 7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 총점과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10번 문항의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10번 문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문항만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가족건강성 문항의 요인구조와 설명력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찾아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Mean, SD, Skewness, Kurtosis of items

(N=494)

Item	Mean	SD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s with total score	
1	서로 신뢰	4.10	.82	-.68	.17	.69***
2	가족원으로서의 소속감	4.17	.83	-.83	.45	.69***
3	서로 터놓고 이야기	3.80	.92	-.45	-.35	.69***
4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3.91	.81	-.46	.14	.70***
5	생활에 필요한 수입	3.66	.87	-.35	-.05	.48***
6	존중과 수용	3.77	.80	-.28	-.10	.74***
7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	3.30	1.06	-.10	-.69	.66***
8	이슈에 대한 논의	3.04	.95	.06	-.37	.66***
9	각자의 역할 수행	3.74	.81	-.48	.47	.68***
10	이웃과 친밀	3.35	1.01	-.37	-.27	.39***
11	서로에 대한 관심 표현	3.60	.84	-.20	-.19	.79***
12	가족 전통과 문화	3.09	.97	-.12	-.35	.53***
13	입장 표현의 기회 제공	3.61	.90	-.42	-.04	.72***
14	문제를 함께 해결	3.81	.87	-.51	.03	.74***
15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	3.58	.92	-.28	-.27	.60***
16	서로 도움	3.85	.84	-.41	-.15	.73***
17	감사와 사랑 표현	3.63	.90	-.29	-.35	.77***
18	서로의 이야기 듣기	3.67	.84	-.27	-.17	.76***
19	위기는 가족관계 강화에 도움이 됨	3.51	.97	-.57	.11	.61***
20	사회활동 참여	2.68	1.14	.20	-.75	.44***
21	함께 하는 시간	3.22	1.01	.02	-.50	.66***
22	신체적 접촉(안아주기, 토닥이기, 손잡기 등)	3.27	1.12	-.15	-.79	.63***
23	함께 하는 대화	3.53	.86	-.13	-.25	.74***
24	유연한 상황 대처	3.62	.78	-.30	.17	.71***
25	여가를 위한 경제적 여유	3.34	.91	-.15	-.03	.52***
26	서로 편안함	3.80	.80	-.22	-.31	.69***
27	공통의 관심사	3.28	.88	-.08	-.11	.73***
28	경제 관리 및 협력	3.48	.87	-.39	.11	.72***
29	안전하고 안정감 있음	3.71	.84	-.18	-.46	.77***
30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3.09	.90	-.11	-.17	.52***
총점		105.8	17.79	-.33	.25	1.00***

*** $p < .001$

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Factor Model

	X^2	df	p	RMSEA
4factor model	652.51	296	.00	.05
5factor model	506.04	271	.00	.04
6factor model	401.34	247	.00	.03

1) 하위 요인 개수의 모형 적합도 평가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하위요인의 수를 6개로 구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요인의 수를 찾아보기 위하여 요인수를 4개, 5개, 6개로 지정하고 각각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인별 모형 적합도에 대한 χ^2 검증 결과, 4요인 모형(χ^2 (296, N = 494) = 652.51, p < .001), 5요인 모형(χ^2 (271, N = 494) = 506.04, p < .001), 6요인 모형(χ^2 (247, N = 494) = 401.34, p < .001) 모두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모형검증을

통해 재생된 공변량 행렬과 원자료의 공변량 행렬 간에는 차이가 없다. 즉, 평가하고자하는 모형이 완벽하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χ^2 값이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게 된다(Hong et al., 2003;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RMSEA 값은 4요인, 5요인, 6요인 모형에서 각각 .05, .04, .03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값이 커질수록 합치도가 나쁨을 의미하는 부적 적합도로서, Browne & Cudeck(1993)에 의하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Table 6. Factor structure and Community of items

Item	I	II	III	IV	V	Community
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51	.13	-.06	.11	.09	.50
13 우리 가족은 자기 입장을 표현한 기회를 준다	.54	-.02	.20	-.02	.02	.61
14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68	.05	.17	.11	-.08	.66
16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68	.01	-.05	.12	.01	.66
1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55	.12	.11	.07	.02	.64
18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67	.03	.16	.07	-.03	.68
24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42	.05	.04	-.02	.17	.55
1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03	.87	-.02	.01	-.02	.75
2 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있다	.01	.71	.03	.04	.09	.63
3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	.19	.40	.39	-.07	-.06	.61
4 우리 가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8	.46	.07	.10	.05	.53
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37	.42	.04	-.01	.03	.64
7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08	.06	.53	.21	.10	.55
8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16	.05	.46	.08	.25	.52
21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08	.09	.45	.06	.30	.55
23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16	.11	.42	.09	.02	.64
5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다	-.04	.08	.03	.81	-.10	.65
15 우리 가족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40	.11	-.06	.45	.05	.65
25 우리 가족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08	-.07	.07	.84	.11	.73
12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05	-.09	.14	.11	.50	.40
20 우리 가족은 사회활동(봉사, 모임 등)에 참여한다	-.09	.06	.04	-.06	.65	.38
30 우리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09	-.03	-.04	.03	.62	.43
Explained Variance(%)	45.20	4.59	3.06	2.15	1.91	
Cumulative Variance(%)	45.20	49.78	52.85	55.00	56.90	
Factor Correlation Matrix I	1.00					
II	.44	1.00				
III	.49	.25	1.00			
IV	.68	.38	.46	1.00		
V	.48	.41	.43	.41	1.00	

사이면 적절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볼 수 있다(Kim, Kim, & Hong, 2009: 105). 그러므로 요인의 수가 4개, 5개, 6개인 모든 모형에서 요인구조는 적합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요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적합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RMSEA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은 6요인의 경우이지만, 각 요인별로 할당된 문항수를 살펴본 결과 한 개 요인에는 한 개 문항만 포함되어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요인의 수를 5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의 개수를 5로 하고,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와 요인적재치 등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우선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3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제외되는 문항 없이 모두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29개 문항에 대하여 사각회전을 실시하고, 요인적재치가 .40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총 22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다섯 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45.20, 4.59, 3.06, 2.15, 1.91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56.90%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5.20%를 설명하며, 9, 13, 14, 16, 17, 18, 24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을 살펴보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가', '서로 돕는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가'와 같이 가족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과 '감사와 사랑 표현', '입장 표현의 기회 제공', '유연한 상황 대처' 등과 같이 표현기회제공 및 유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요인을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는 1, 2, 3, 4, 6번 문항이 포함되며, 전체 변량의 4.59%를 설명한다. 두 번째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간의 신뢰', '소속감', '터놓고 이야기 하기', '서로에 대한 존중' 등 가족원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 수용적인 가족분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호 존중과 수용> 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06%를 설명하고 있으며, 7, 8, 21, 23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네 개 문항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이슈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기', '가족과 같이 보

내는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는가' 등 주로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높이는가를 알아보는 내용 이므로, <질적 유대감> 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5%를 설명하며, 3개 문항 (5, 15, 25번)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 와 '여가를 위한 경제적 여유', '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있는지'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네 번째 요인은 <경제적 안정과 협력> 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1.91%를 설명하고 있으며, 12, 20, 30번의 세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전통과 문화가 있는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을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라고 명명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가족건강성척도(KFSS-II)의 22개 문항들을 측정변수로 하여 이들과 이론적 변수 간의 가정된 관계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일치 하는가 즉, 구인 타당도 검증에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척도의 측정모형으로 위계적 2차 5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경쟁모형으로 1요인과 5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χ^2 값을 확인하였고, χ^2 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요인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증 결과 모형이 좋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고, CFI, TLI 수치에서도 .90 이상일 때 좋은 합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부합되는 수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왔다(CFI=.84, TLI=.82). RMSEA는 값이 커질수록 합치도가 나쁜 것을 나타내는 부적 합치도로서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1요인 모형의 RMSEA는 .09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Table 7. Model fit Index for Confirmatory Factor Model

	χ^2	df	CFI	TLI	RMSEA
1 factor model	1158.58	209	.84	.82	.09
5 factor model	580.92	199	.93	.92	.06
stepwise 2 factor model	611.79	204	.93	.9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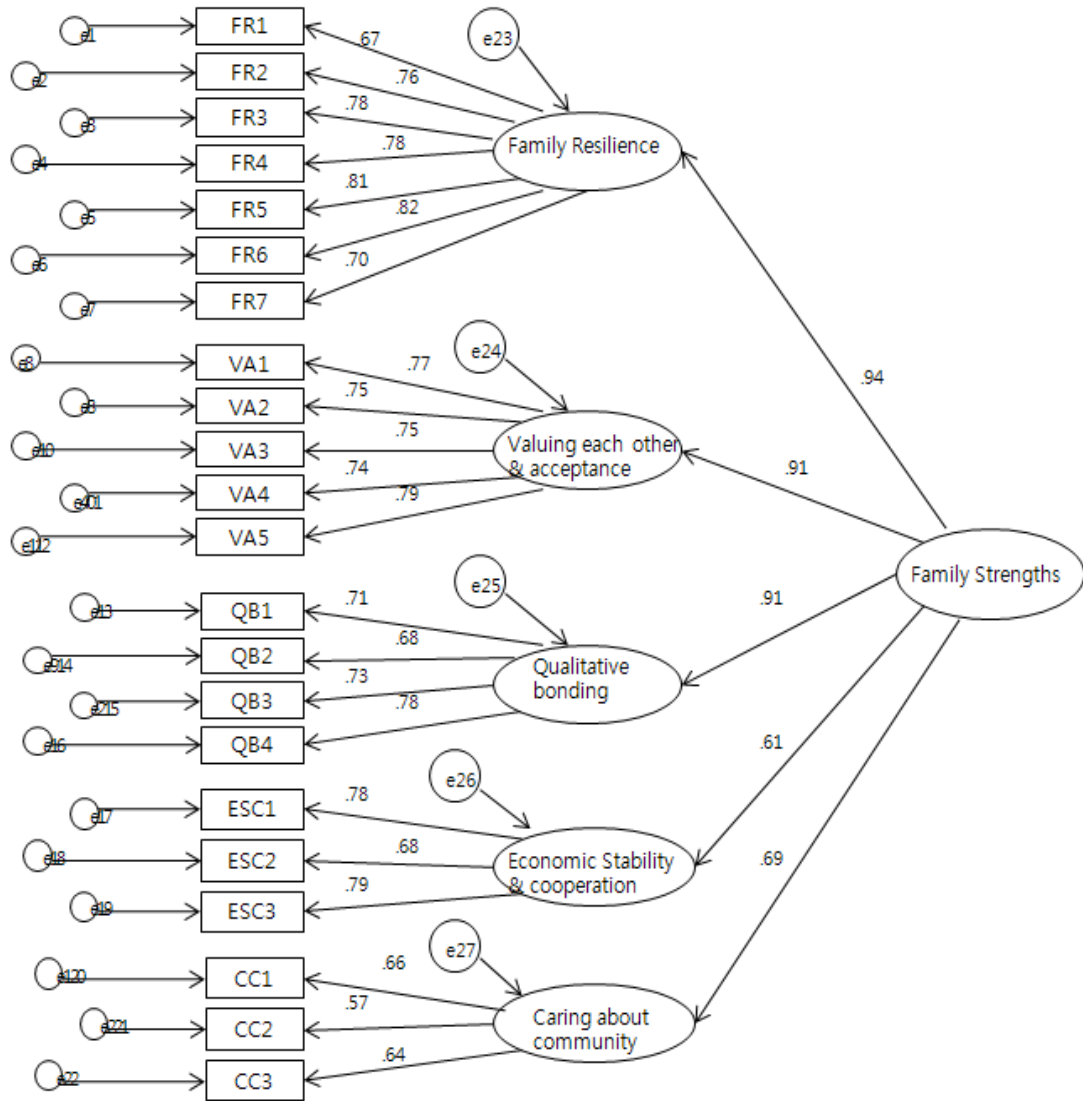


Figure 1. Confirmative Path Model of Family Strengths Scale

할 수 없다. 또한 1요인 모형의 요인 적재치 22개는 .35에서 .79로 나타났으며, 이중 5개 문항은 .5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5요인 모형의 경우, 1요인 모형과는 달리,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 .93, TLI= .92, RMSEA=.06). RMSEA 값에 대해서는 통계학자마다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어서, 매우 좋은 적합도의 기준이 .05(Browne & Cudeck, 1993)이거나 혹은 .06(Hu & Bentler, 1999) 이하로 나타나기도 한다(Kim, Kim, & Hong, 2009: 107). 이것에 의한다면, 본 연구에서 5요인 모형은 RMSEA값이 .06으로 비교적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며, CFI값과 TLI값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좋은 합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1차 5개 요인모형에 대한 22개 문항 적재치는 .56에서 .82이었으며, 2차 요인에 대한 5개 요인 적재치는 .56에서 .94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척도의 위계 2차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된 경로 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다음 <Figure

1>과 <Table 8>에는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요인계수가 표시되어 있다. 위계 2차 5요인 모형에서 나타난 표준화 요인 계수는 모두 .57 ~.94사이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 모든 모수 추정치가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요인의 적합도 지수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 .93 TLI= .92, RMSEA=.06)

4. 준거타당도 분석

본 가족건강성척도(KFSS-II)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준거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강성지표(Family Hardness Index)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준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가족강성지표는 McCubbin, McCubbin, and Thompson(1991)이 개발한 것으로 여기서 강성(hardness)이란 가족의 내적 건강성과 견고성을

Table 8. Parameter's Estimate of Family Strengths Scale Model

Items	Path		Estimate			
		Factor	Unstandardized factor coefficient	Standardized factor coefficient	S. E.	C. R.
FR1	←	Family Resilience	1.01	.67	.07	14.16***
FR2	←	Family Resilience	1.26	.76	.07	15.92***
FR3	←	Family Resilience	1.26	.78	.07	16.3***1
FR4	←	Family Resilience	1.21	.78	.07	16.32***
FR5	←	Family Resilience	1.34	.81	.08	16.77***
FR6	←	Family Resilience	1.28	.82	.07	17.10***
FR7	←	Family Resilience	1.00	.70		
VA1	←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1.01	.77	.05	18.24***
VA2	←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0.98	.75	.05	17.49***
VA3	←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1.07	.75	.06	17.55***
VA4	←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0.94	.74	.05	17.37***
VA5	←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1.00	.79		
QB1	←	Qualitative Bonding	1.13	.71	.07	15.83***
QB2	←	Qualitative Bonding	0.97	.68	.06	15.09***
QB3	←	Qualitative Bonding	1.10	.73	.06	16.19***
QB4	←	Qualitative Bonding	1.00	.78		
ESC1	←	Economic Stability & Cooperation	0.94	.78	.06	15.11***
ESC2	←	Economic Stability & Cooperation	0.87	.68	.06	13.82***
ESC3	←	Economic Stability & Cooperation	1.00	.79		
CC1	←	Caring about community	1.10	.66	.11	9.91***
CC2	←	Caring about community	1.14	.57	.12	9.17***
CC3	←	Caring about community	1.00	.64		

*** $p < .001$

Table 9. Correlations Analysis between KFSS-II and FHI

	Family Strengths Scale				
	family resilience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qualitative bonding	economic stability & cooperation	caring about community
Family Hardness Index	.40**	.32**	.31**	.18**	.30**

** $p < .01$

의미한다. FHI와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 (KFSS-I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Table 9>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척도의 하위요인

들은 McCubbin et al.(1991)의 가족강성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이 건강할수록 가족의 내적 건강성, 견고성도 높다는 것으로 본 척도가 가족건강성을 적합하게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0. Reliability of Family Strengths Scale

	Family strengths	Sub Factors				
		Family Resilience	Valuing Each other & Acceptance	Qualitative Bonds	Economic stability & Cooperation	Caring about community
Cronbach's α	.94	.91	.87	.82	.79	.65

5.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22개 문항과 5개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0> 제시된 바와 같이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4였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5~.91 범위에서 나타났으므로, 본 척도가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할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반가족, 맞벌이부부, 농촌부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주부, 청소년기 자녀, 대학생, 노인 등 가족원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실태를 조사하였고 연구주제도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을 분류하는 연구와 가족건강성과 결혼안정성, 부부 상호작용, 행복, 자아존중감 등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요인 확인 및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Eo & Yoo, 1995; Choi, 2006) 등도 발표되었다(Kim & Kim,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외국의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외국의 척도들은 서구적인 문화와 가족생활을 반영한 것이어서 한국 문화 및 가족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Eo and Yoo(1995)는 기존 척도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한국가족의 건강성 측정도구인 '가족 건강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족 건강도' 척도는 '가족간의 유대',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의 가치치계 공유'의 4 하위요인으로 총 34문항이며 이후 많은 연구에서 Eo and Yoo(1995)의 '가족건강도' 척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제작된 지 오래되어 재검증과 사회 및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건강가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적인 교류가 진행되면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명료한 분석이 요구되어 Yoo(2004)는 DeFrain and Stinnett(2000)이 개발한 American Family Strengths Inventory에 대한 준거 타당도검사와 pilot 연구 등을 거쳐 68문항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개발하고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Yoo, 2004)도 이후 여러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조사를 실시하여 제작된 것으로 문항의 수가 68문항으로 다소 많고 문장이 아동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족건강성을 독립변수의 일부나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연구에 활용됨에 있어 일부 문항만 사용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췌한 문항에 대한 정확한 재검증 과정 없이 주로 신뢰도 검사만 실시한 후 사용되고 있어 측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형 척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척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KFSS의 문항수를 축소하고 문장을 평이하게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II(KFSS-II)'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Healthy Family(2010)에서 센터 이용자들에게 활용하여 건강가정사업을 통한 가정건강성의 향상을 규명하고 건강가정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척도인 '가정건강성'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관계지표(R, 소통과 친밀감) 10문항, 자원관리지표(M, 가치와 가족자원관리) 10문항, 외부관계지표(E, 일-가정의 균형, 지역사회관계) 3지표에 관한 질문 30문항과 가정의 기초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 10문항에 대한 총점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며, R, M, E세 지표의 높고 낮음에 따라 8개의 가정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족의 강점과 보완할 점, 실천 전략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다.

Eo and Yoo(1995)의 '가족건강도' 척도와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 그리고 Korean Institute of Healthy Family(2010)의 '가정건강성' 척도 등이 개발되어 건강가족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 외국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은 계

속 변화하는 체계이므로 건강가족의 개념 및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Yoo(2004)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의 68개 문항의 내용과 하위요인을 검토하여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문항수를 축소하여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가족정서', '존중과 유대감', '문제해결', '경제적 안정', '지역사회 참여'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별 5개의 문항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어 예비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가족배경의 응답자들이 평이하게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성별에 따른 반응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초적 특성을 알아보고, 가족건강성에 대한 각 문항의 관련성과 변별력을 살펴보고자 기초통계분석과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은 3.04 ~ 4.17, 표준편차는 .78 ~ 1.14의 범위에 있었고, 총점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33, .25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가족건강성 총점과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12번 문항의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요인의 수를 찾아보기 위하여 요인수를 4개, 5개, 6개로 지정하고 각각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χ^2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하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나,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값을 살펴 본 결과, 각 모형이 .03~.05로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값이 가장 낮은 것은 6요인 모형이었으나, 6요인 중 한 개 요인은 한 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으로서 적절치 않았으므로, 요인수를 5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수를 5로 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재치치가 .40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총 22개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다섯 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6.90%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9, 13, 14, 16, 17, 21, 28번)은 전체 변량의 45.20%를 설명하며, 가족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과 표현의 기회 제공 및 유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족탄력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1, 2, 3, 4, 6번)은 전체 변량의 4.59%를 설명하며, 가족원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 수용적인 가족분위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호 존중과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7, 8, 21, 23번)은 전체 변량의 3.0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높이는가를

알아보는 내용이므로, '질적 유대감'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5, 15, 25번)은 전체 변량의 2.15%를 설명하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문항들이므로,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12, 20, 30번)은 전체변량의 1.9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라고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22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위계적 2차 5요인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이론적으로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5개 요인이 구조적으로도 비교적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강성지수(FHI)와의 준거타당도 분석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22개 문항과 5개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4, 하위요인별로는 .65~.91 범위에서 나타나, 본 척도가 가족건강성 측정 도구로서 매우 신뢰할 만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대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문항으로 가족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KFSS-Ⅱ)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 가족의 가족 건강성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측정하여 가족성원이 가족의 건강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가족 건강성을 신속하게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Barnhill, L. R.(1979). Healthy family systems. *The Family Coordinator*, 28, 94-100.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hoi, S.(1999). *A study on healthy family factor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2006).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Double-income Coup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6), 47-58.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 Winston Press, Inc.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 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Frain, J.(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Eo, E. & Yoo, Y.(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Eo, E.(1996).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Eo, E. & Yoo, Y.(2001).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 In Y. Yoo(Eds.). *Strong family research*. Seoul: Kyomoonsa Publishing Co.
- Gubrium, J. F. & Holstein, J. A.(1990). *What is family*. NY: Mayfield Pub Co.
- Hong, S., Malik, M. L., & lee, M. K.(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u, L. Z., & Bentler, P. M.(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eong, S.(2007).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practica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me and my family relations" unit and family strength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ngwon.
- Kim, H. & Kim, K.(2011). A Study of related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59-86.
- Kim, J., Kim, M., & Hong, S.(2009). *Writing to dissertation by AMOS*.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Y.(2008).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 adjustment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nam University, Jeonju.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2010).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cale of healthy family. (e-book http://ebook.familynet.or.kr/20100819_132208).
- Lee, S.(2008). *The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s on marital ins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8-84.
- Lim, H. & Kang, S.(2012)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s and we-consciousness o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311-327.
- McCubbin, M. A., McCubbin, H. I., & Thompson, I. (1991).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Olson, D. H. & DeFrain, J.(1999). *Marriage and the family : diversity and strengths*(3rd ed.). Mountain View, CA : Mayfield Publishing Co.
- Olson, D. 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104-137. NY: Guilford Press.
- Olson, D. H.,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2nd ed.). Los Angeles, CA: Sage.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 3-28.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9). *Circumplex model :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Y : Haworth Press.
-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 Park, J. (2012).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atents of preschooler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on nurturing attitude, nurturing burden and family streng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Stinnett, N., & Saur, K. H.(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 Stinnett, N., Sanders, G., & DeFrain, J.(1981). Strong families: a national study. In N. Stinnett, J. DeFrain, K. King, P. Knaub, & G. Rowe(Eds.), *Family strengths 3: Roots of well-being* (33-4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tinnett, N., Sanders, G., DeFrain, J., & Prkhurst, A. (1982). A nationwide study of family who perceive themselves as strong. *Family Perspectives*, 16.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 Yang, S.(2004). A study on the relative happiness through gender in rural couples and the effect of family healthi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53-172.
- Yoo, Y.(1994). The rule of family members for the strong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Conference Proceeding Book*, Seoul, Korea.
- Yoo, Y.(1999).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3), 93-102.
- Yoo, Y.(2001). *Strong family research*. Seoul: Kyomoonsa Publishing Co.
- Yoo, Y.(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Yoo, Y., Kim, S., & Kim, K.(2008). *Family relationships*. Seoul: Kyomoonsa Publishing Co.
- Yoo, Y., Lee, I, Kim, S., Hong, S., & Choi, H. (2009). *Understanding of strong family*. Seoul: Kyomoonsa Publishing Co.
- Life Innovations, Inc. www.facesiv.com

접수일 : 2012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2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07일

[부록 1. 문항간 상관표]

item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24	25	30	
1	1.00																						
2	.69***	1.00																					
3	.57***	.52***	1.00																				
4	.56***	.56***	.58***	1.00																			
5	.28***	.28***	.23***	.34***	1.00																		
6	.62***	.54***	.57***	.59***	.28***	1.00																	
7	.37***	.41***	.47***	.39***	.33***	.46***	1.00																
8	.35***	.42***	.48***	.40***	.27***	.43***	.56***	1.00															
9	.45***	.46***	.40***	.49***	.31***	.58***	.36***	.39***	1.00														
12	.26***	.33***	.29***	.34***	.24***	.27***	.36***	.41***	.32***	1.00													
13	.45***	.46***	.54***	.49***	.31***	.55***	.46***	.47***	.48***	.33***	1.00												
14	.51***	.50***	.56***	.50***	.24***	.60***	.47***	.50***	.57***	.34***	.60***	1.00											
15	.36***	.38***	.33***	.42***	.50***	.43***	.40***	.35***	.43***	.30***	.37***	.48***	1.00										
16	.53***	.51***	.50***	.50***	.32***	.56***	.41***	.39***	.55***	.29***	.61***	.64***	.47***	1.00									
17	.51***	.49***	.53***	.52***	.30***	.62***	.48***	.46***	.53***	.37***	.57***	.60***	.48***	.64***	1.00								
18	.49***	.47***	.56***	.53***	.28***	.63***	.48***	.48***	.51***	.33***	.67***	.62***	.44***	.64***	.72***	1.00							
20	.21***	.23***	.22***	.26***	.11***	.24***	.22***	.28***	.22***	.38***	.21***	.21***	.19***	.23***	.30***	.25***	1.00						
21	.40***	.42***	.47***	.39***	.27***	.45***	.58***	.47***	.39***	.38***	.43***	.49***	.33***	.41***	.50***	.48***	.37***	1.00					
23	.48***	.49***	.59***	.50***	.33***	.55***	.50***	.49***	.47***	.35***	.55***	.56***	.35***	.55***	.56***	.57***	.25***	.58***	1.00				
24	.43***	.48***	.45***	.49***	.33***	.52***	.40***	.41***	.50***	.34***	.57***	.53***	.41***	.54***	.54***	.55***	.25***	.38***	.38***	1.00			
25	.27***	.29***	.21***	.31***	.66***	.27***	.40***	.33***	.33***	.35***	.29***	.24***	.51***	.27***	.31***	.29***	.21***	.34***	.32***	.32***	1.00		
30	.27***	.29***	.25***	.26***	.21***	.30***	.24***	.40***	.32***	.39***	.29***	.33***	.27***	.31***	.37***	.34***	.40***	.39***	.30***	.30***	.29***	.29***	1.00